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는
대한민국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아동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실컷



맘껏

놀이터
지켜라
색동어린이공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놀이터를 지켜라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은 도시놀이터 개선사업, 농어촌 아동지원사업,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은 폐쇄 예정인 놀이터,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지켜주는 사업입니다.









어느덧 네 번째 프로젝트인 ‘색동어린이공원’은 서울시의 낙후된 놀이터를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곳으로 선정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놀이터입니다.

낡고 오래되어 안전하지 않았던 색동어린이공원은 아동과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일방적인 디자인이 아닌 아동의 생각을 듣고, 놀이를 관찰하고, 함께 놀면서 진행되는 참여 디자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주민 설명회, 아동 및 성인 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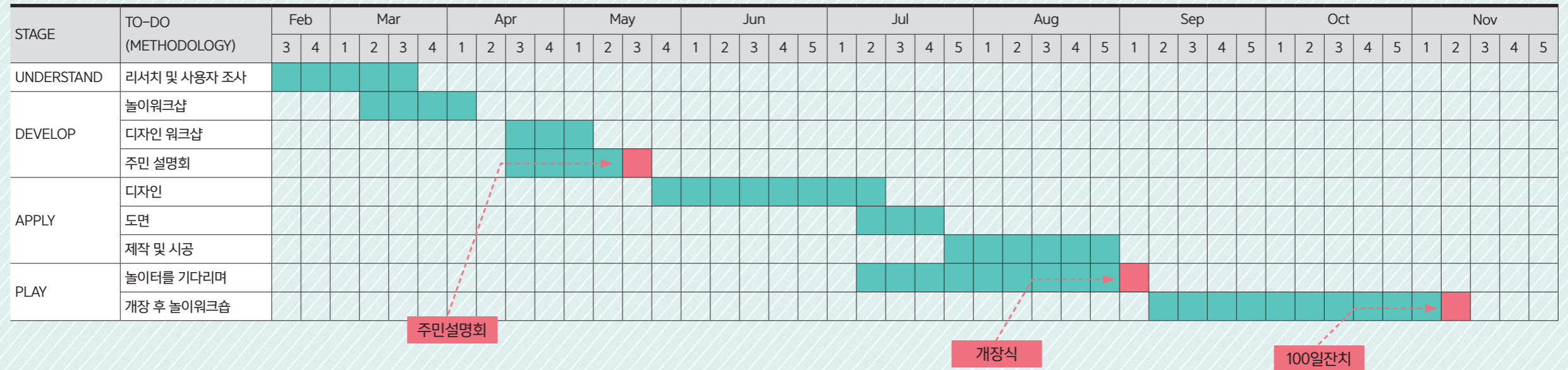
새롭게 조성된 색동어린이공원은 서울시, 강북구, (주)코오롱, (주)청우펀스테이션, (주)아이땅이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주)코오롱에서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목적에 적극 지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재능기부까지 후원하여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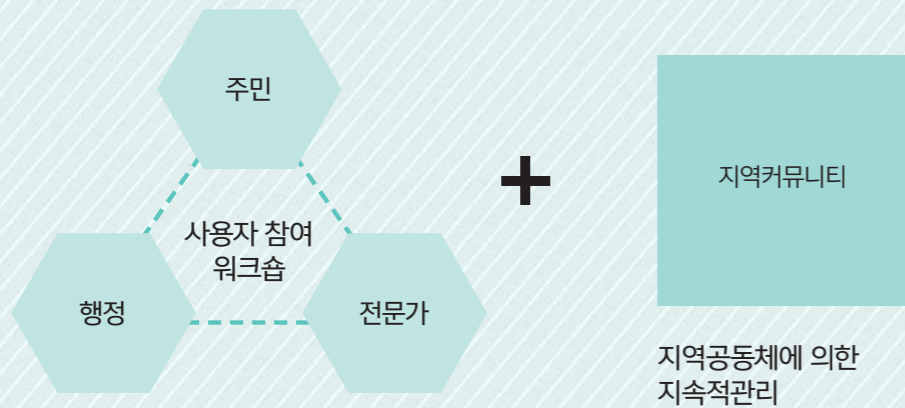
차례 **놀이터를 지켜라**
색동어린이공원

<p>I</p>  <p>안녕? 색동어린이공원</p> <p>동네를 만나다 색동어린이공원을 만나다</p> <p>7</p>	<p>II</p>  <p>놀이터를 이해하다</p> <p>아이들 이야기 주민들 이야기 보호자 이야기</p> <p>19</p>	<p>III</p>  <p>함께 그리다</p> <p>어린이디자인워크숍 주민참여워크숍 놀이워크숍 주민설명회</p> <p>39</p>	<p>IV</p>  <p>놀이터를 기다리며</p> <p>참여디자인</p> <p>59</p>	<p>V</p>  <p>디자인하기</p> <p>컨셉 계획 의견 반영안</p> <p>65</p>	<p>VI</p>  <p>색동아 반가워</p> <p>개장식 애들아 놀자</p> <p>77</p>	<p>VII</p>  <p>색동아 축하해</p> <p>놀이한마당 달라진 놀이터 이야기</p> <p>91</p>	<p>VIII</p>  <p>마치며 색동을 말하다</p> <p>111</p>
--	---	--	---	--	--	---	---

프로젝트 순서 및 전체일정



주민참여형 설계



-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공간
-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어린이 참여디자인

책임감 있는 어린이 되기 위해

- + 어린이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 +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중 어린이 의견 존중 발취)

- 우리 마을 이해하기
- 우리가 원하는 놀이터 만들기
- 우리 놀이터 지키기



강북구 수유1동의 색동어린이공원
세이브더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
도시놀이터 4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I

안녕? 색동어린이공원

수유1동 인구현황

총 326,958명의 사람들이 13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강북구에서 살고 있다. 그 중 수유1동의 거주자는 22,562명으로 강북구에서 여덟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동네이다. 이 동네는 유소년보다 고령인구가 7% 더 많이 살고 있다.

동명	인구수			연령계층별 인구			세대수
	계	남	여	유소년 (0-14세)	생산가능 (15-64)	고령 (65세이상)	
수유1동	22,562	11,214	11,348	2,092	16,709	3,761	10,119

수유1동 대체놀이터

색동어린이공원 주변은 대부분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놀이공간이 부족했다. 인근의 다른 공원을 방문하기엔 큰 차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은 야구부의 사용으로 학교가 끝나도 마음껏 뛰어 놀 수 없는 장소이다. 키즈카페, PC방과 같은 사설공간만 동네주변에 자리잡고 있을 뿐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은 부족했다. 그래서 인지 색동어린이공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다.



대상지 분석 _ 대체놀이시설



대체놀이시설

1. 어린이공원 : 대상지 500m내 5개소 어린이공원 인접
 - 새싹어린이공원: 640m²
 - 보들골어린이공원: 470m²
 - 색동어린이공원: 1,787m²**
 - 새싹어린이공원: 378m²
 - 새싹어린이공원: 870m²
 - 새싹어린이공원: 3,200m²
2. PC방: 대상지 400m주변 10개 PC방
3. 키즈카페: 대상지 400m주변 내부놀이시설 1곳의 키즈카페 인접

대상지 주변 문제점

- 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노후화로 시설 부족
- 저소득층의 노후주거 밀집으로 도시의 슬럼화현상 예상
- 커뮤니티시설(공원 및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설 공급 부족
- 놀이대체시설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놀 공간을 잃어버림

사회적 장소 및 시설

수유동은 생각보다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수유시장에 위치한 '작은도서관'과 '다락방'은 만화, 목공 공방을 운영하여 주민모임을 지원하고 있었고,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인 '두루두루배움터'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공원근처 40m 이내 어린이집은 총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색동어린이공원을 대체놀이터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3곳이나 되었다. 또한 놀이터 바로 옆에 위치한 강북노인대학에서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나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4길 23 (수유동)	145
새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4길 35 (수유동)	50
운산유아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324 (수유동)	49

현장진단



어린이집의 대체 놀이터로서의 색동어린이공원

영유아들에게 실외 놀이활동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넓은 공간과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면서 대소근육이 발달하고,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는 친환경적 사고와 탐구력이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친구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인 양보와 타협, 협동, 규칙을 배우기도 한다.

그래서 보육법에서는 정원이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실외 놀이터를 설치하고 3종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래, 물을 이용한 자연놀이가 가능해야 하고, 교사가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돌 볼 수 있도록 공간은 개방적이면서도 외부 위험으로부터 차단되어진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이러한 놀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유 1동과 같이 다세대 중심의 주거 밀집 지역이나 업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실외놀이터 부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 놀이터를 대

체 놀이터로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집들은 대체놀이터로 인근의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색동어린이공원 역시 새롬어린이집을 포함하여 3곳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바깥 놀이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공원들처럼 이들을 위한 배려는 조금 아쉬웠다. 조합놀이대는 놀이기능의 난이도가 높고 규모가 커서 영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했다. 또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배치는 아이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시야를 차단하여 관리관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욱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다.

어린이공원은 공공 공간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매일 이용하는 일상과 같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단순히 쉼터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놀이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만 한다.



접근보행

아이들이 놀이터로 이동하는 동선 - 부정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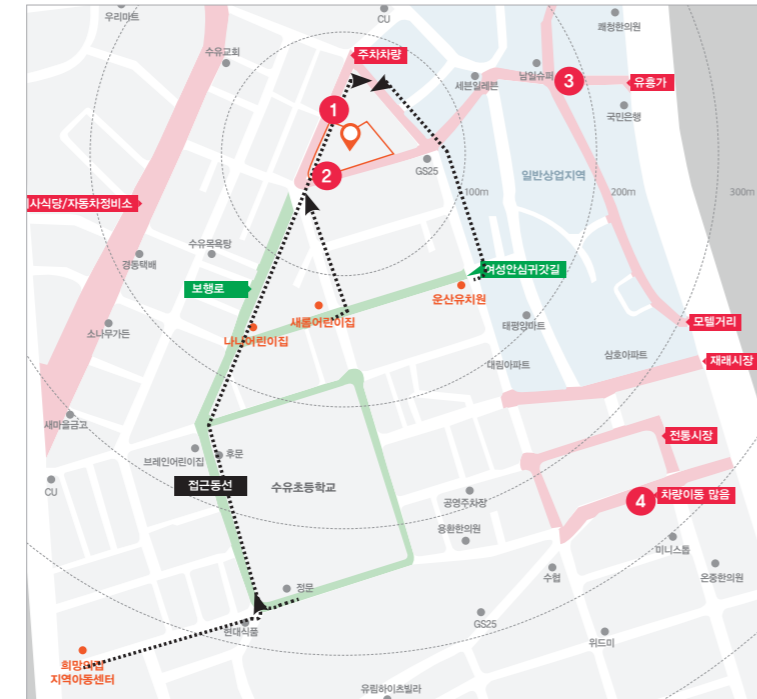
1 거주자우선 주차차량

어린이 놀이터 주변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정이 되어 어린이 놀이터가 잘 보이지 않음. 출입할때 주차차량에 가려져 다른 차량의 이동이 보이지 않음.



2 울타리부분 쓰레기 / 불법주차

놀이터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울타리 주변으로 쓰레기가 많음. 또한 울타리 주변에 주차선이 없음에도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유흥가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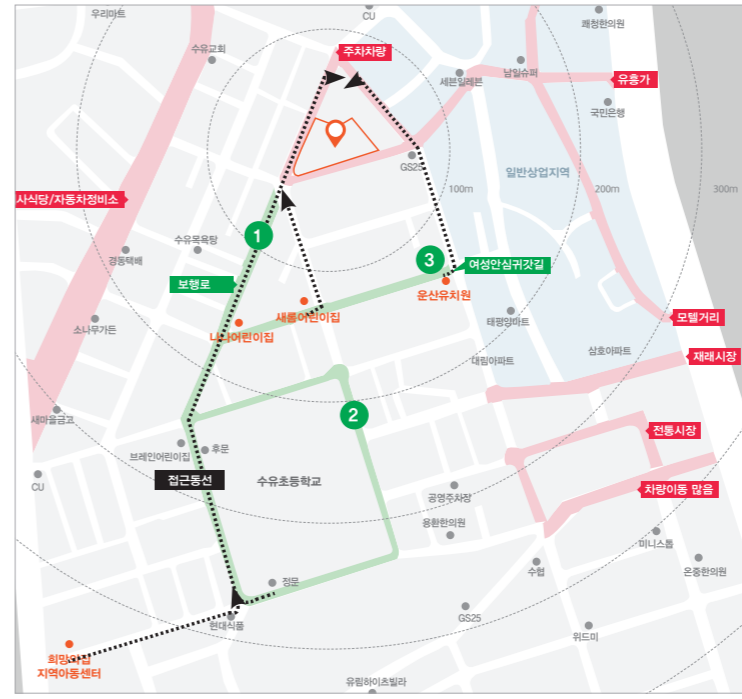
보행 동선에는 해당 되지 않지만 놀이터 근처에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모텔촌과 유흥가가 즐비해 있어 아이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4 물류차량의 이동이 많음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초등학교 길에 시장 물류 차량의 동선과 아이들 등학교길 동선이 겹쳐 위험, 또한 도로, 인도 구분이 없음.

아이들이 놀이터로 이동하는 동선 - 긍정적 요소



1 보행로 구분

색동초등학교 후문부터 색동 어린이 공원까지는 물리적으로 인도,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랑색 실선으로 보행로가 구분되어 다른 길에 비해 안전하다.



2 안전펜스

초등학교 주변 4면은 안전펜스가 둘러진 인도가 있어 아이들의 동선이 차도로 부터 분리되어 안전하다.



3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귀갓길로 설정되어 있어 잦은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곳곳에 신고를 위한 위치표지판이 있어 비교적 안전한 길로 형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 놀이터를 처음 방문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넓은 모래놀이터 위에 자리한 커다란 조합놀이대였다. 다양한 놀이기능으로 구성되어있었지만 화려한 컬러와 장식들은 주변의 주택가와 섞여 어수선한 느낌이 들게 했고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지만 배치의 형태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가로 막고 있어 매우 답답한 느낌을 주었고 과거에는 없었다던 주차타워도 공간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었다.



- 위치 : 강북구 수유1동 49-7
- 면적 : 2,341.2 m²
- 공원지정 : 1964년
- 공원조성 : 1970년
- 최근정비 : 2009년
- 주이용계층 : 어린이집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색동어린이공원의 바닥분수와 음수대, 화장실등 시설들은 비교적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화장실 세면대는 누군가 깨뜨려 여기저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오히려 더 삭막한 느낌이 주었다. 또 놀이터를 둘러싸고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놀이터는 더 고립되고 위험한 공간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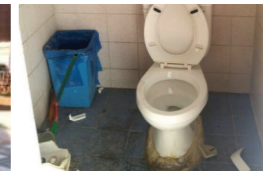
대상지 현황 - 시설물현황



- 분수대**
- 분수대는 1년 중 2주 정도 사용중
 - 휠리스, 스케이트보드 등 아이들의 탈 것을 타는 장소로 이용 중



- 그림벽**
- 상상놀이터 제작시에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을 전시해 놓음



- 화장실**
- 세면대와 변기로 이루어짐.
 - 현재 화장실 관리는 노인대학 총무가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현장방문시 세면대가 깨져 있었음.



- 음수대**
- 놀이터 뒷편으로 음수대가 조성되어 있음.
 - 유아들의 높이와 맞지 않음.



- 운동시설**
- 4가지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음
 - 차폐된 공간에 위치해 있음.
 - 밤에는 비행청소년들의 이이트로 사용됨.



- 벤치**
-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벤치 수량 부족
 - 하교 후 아이들의 가방보관소로 사용중
 - 벤치 옆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어 위생적으로 좋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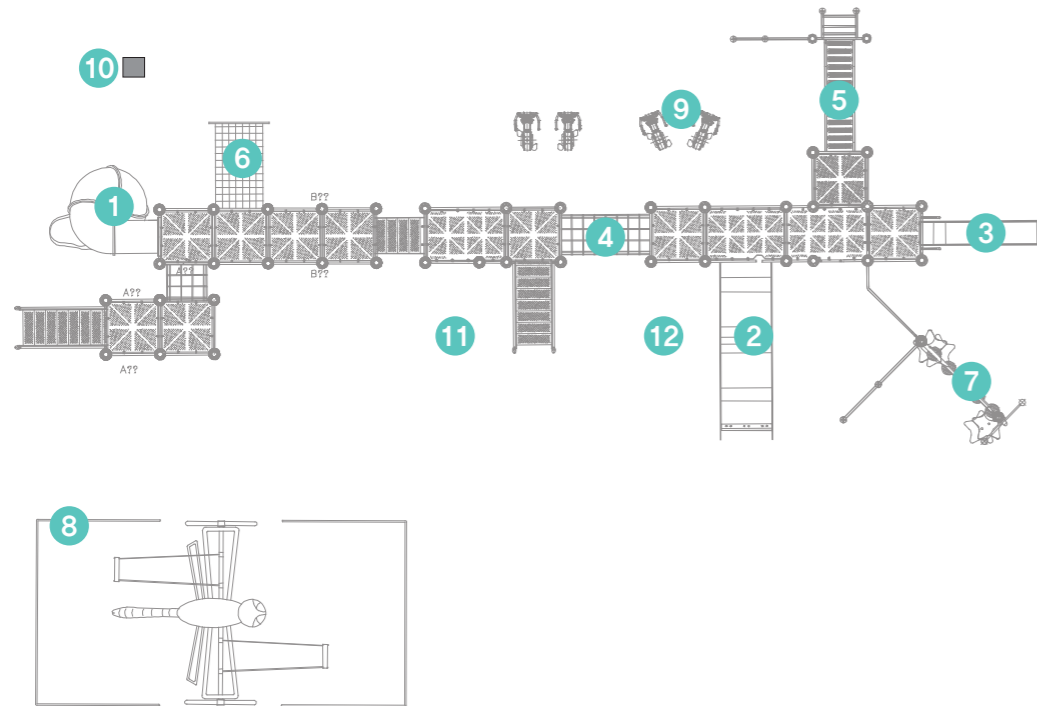


- CCTV**
- 놀이터에 하나 설치되어 있음
 - 비행청소년들의 주 아지트인 운동기구쪽은 비추지 못함
 - 주기적으로 음악방송이 나오고 있음



- 방범대초소**
- 자율방범대에서 소유의 컨테이너
 - 사용이 없을시에는 항상 닫혀 있음

대상지 현황 - 놀이시설물현황



1 원통미끄럼틀 2 큰미끄럼틀 3 좁은 미끄럼틀 4 그물 건너기



5 건너기 6 그물오르기 7 다양한 오르기



8 그네 9 자전거 10 흔들놀이



11 고무포장 12 모래놀이터

놀이기구는 매우 크고 다양한 기능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용인원과 연령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어린이집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이 많아
잘 이용되지 않았다.



동화 같은 벽화와 다양한 놀이로 구성된 커다란 조합 놀이대, 잠자리 그네까지... 모두가 좋아할 것만 같은 공간이 왜 마을 사람들에게 골칫덩이가 되었을까?

II

놀이터를 이해하다

아이들이야기 | 유아

“낮은 미끄럼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오늘 친구들과 색동어린이공원을 나가는 날이다. 엄청 큰 조합놀이대가 있지만 그물다리와 건너기, 높은 미끄럼틀 등은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위험하다. 결국 오늘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주변만 돌고 돌아갔다. 어린이집 하원 후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놀러온 어린이는 신나게 뛰어 놀고 싶지만 큰 조합놀이대에 가려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앞에 앉아 모래놀이를 한다.



오전 10시쯤 부터는 어김없이 주변 어린이집에서 놀이터를 방문한다. 누리과정에 바깥놀이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을에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 빗소리와 눈 발자국 등 이곳에서 자연의 느끼기도 한다. 하원 후 엄마와 함께 놀이터를 방문하는 유아들도 많이 보였다. '더러운 모래놀이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까? 넓고 넓은 모래로 이루어진 색동어린이공원에서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엄마 앞 뿐이었다.



아이들이야기 | 초등학생

“안전하고 넓은 공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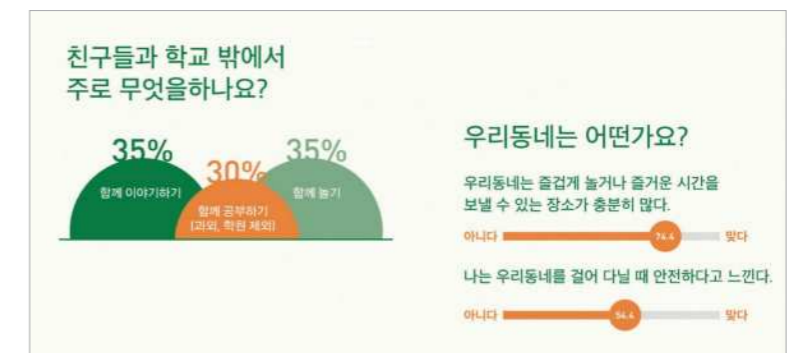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요즘 유행인 힐리스와 스케이 트보드, 자전거를 타고 색동어린이공원에 나온다. 놀이터에는 기구들로 인하여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없으니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대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색동어린이공원이 아니면 탈 곳은 더욱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좁지만 색동어린이공원에서 탈 것들을 탄다.”



“수유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5학년 어린이에게 색동어린이공원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하지만 오래된 놀이터로 인해 흔들거리는 기구는 너무 무섭다.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은 색동어린이공원 뿐이므로 낙후된 놀이기구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교 후 2시 부터 5시 까지 이곳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아지트가 된다. 남자아이들은 주로 넓은 분수대에서 탈것을 타거나 여자아이들은 그네를 여럿이 같이 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색동어린이공원이 된다. 지금의 놀이기구가 비록 시시하고 위험하지만 친구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교 후에 항상 이곳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이야기 | 청소년

“잠시나마 친구와 함께 휴식하고 싶어요”

“한 청소년은 색동어린이공원에서 어릴 때 많이 놀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비해 많이 커버린 청소년에게 색동어린이공원은 활용할 공간이 부족한 곳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은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공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공원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색동어린이공원의 경우 앉아서 휴식할 공간이 부족하며, 앉아 있으면 파리가 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오후 다섯시 부터 일곱시, 학업에 바쁜 청소년들에게 색동어린이공원은 학원을 오고 가다 들리는 휴식공간이다. 친구들과 약속장소를 정할 때도 색동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한다. 바쁜 시간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청결하지 않은 위생상태와 예전에 비해 많이 낡아진 기구들 때문에 더 꺼려진다고 한다.



주민들 이야기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색동어린이공원 앞에 사는 한 어르신은 늦은 밤 색동어린이공원에서 모이는 비행청소년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색동어린이공원은 어른들의 눈과 CCTV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늦은 밤 색동어린이공원에 모이는 비행청소년들의 심한 욕설과 시끄러운 목소리들로 인해 밤에 창문을 열수가 없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색동어린이공원은 점차 골칫덩이로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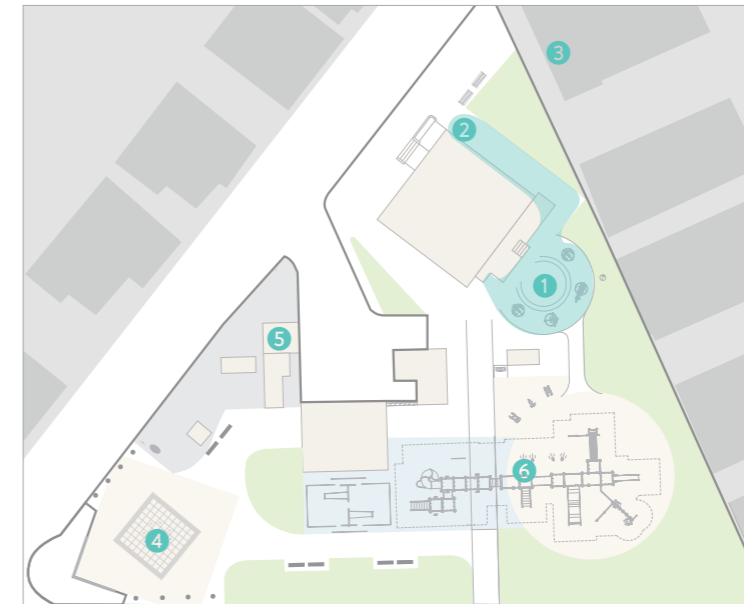
“가려진 공간 때문에 비행 청소년 밀집지역이 되었어요. 10년을 살면서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 본적이 없어요.”

주민좌담회

일시
2017. 3. 24(금)
11:00-12:30 (90분)

장소
수유1동 노인정 지하강당 /
색동어린이공원

참여인원
자율방범대 2명, 강북노인대학주민 1명,
주민 7명, 강북구청 주무관



1 구석에 구성된 운동시설
운동기구가 시야에 보이지 않아 존재를 모르는 주민들이고 어둡고 외져있어 사용이 어려움.

2 방과후 청소년 밀집지역
어둡고 차폐된 공간과 계단부근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서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됨.

3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수 없음
여름철 야간에 청소년들의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함.

4 분수대 불필요
지금의 공원구조에서 분수대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적합하지 않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분수대를 없애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좋겠음.

5 화장실 관리 필요
화장실도 관리 필요. 남자 화장실에 변기보다 소변기가 더욱 필요

6 놀이터의 구조 변경 필요
지하주차장 관리동 건물이 있고 큰 시설물이 위치해 있어 전체적으로 공원이 폐쇄적인 형태. 오픈된 공간으로 변경이 필요

“그늘도 없고 마땅히 걸어서
산책할 공간이 없어서 안에만 있게 돼”

노인정 인터뷰

일시
2017. 3. 31(금)
12:00-13:00 (60분)

장소
강북노인대학 휴게실

참여인원
강북노인대학 이용자 10명



인터뷰 내용

1 놀이터 이용 관련

- 노인정에서는 놀이터 이용이 별로 없음.
- 재조성되면서 소나무가 많이 심어 지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 그늘이 없음.
- 앉아서 휴식 할 공간부족, 의자 부족.
- 사람들이 여름에는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은 날이 추워서 이용을 잘 안함.
- 아침에 놀이터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 있음.
- 주차장과 놀이시설물이 생기고서는 다 막히고 좁아짐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음.

2 운동시설 관련

-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연세가 높아서 사실상 운동기구 사용 못함

- 타 공원의 운동시설보다 종류 부족

3 비행청소년들 관련

-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날씨가 풀리면 많이 옴.
- 순찰차들이 자주 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음.

4 재조성되기 전 놀이터 관련

- 조성전에는 넓은 공터에 남녀노소 누구나 밤이고 낮이고 바람 쐬러 나왔었음.
- 조성전에는 윷놀이, 잔치 등 지역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원이 좁아져 그런 행사들이 사라짐
- 조성전에는 큰 나무들이 많아서 그늘이 있었지만 지금은 땀벌이라 이용 어려움

강북구청

일시
2017.02.20(월)

장소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참여인원
푸른도시과 팀장님, 주무관

“주로 어두운 조명과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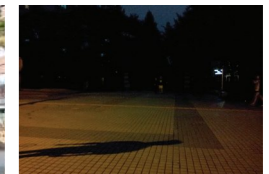
주요민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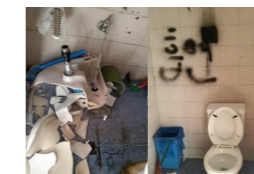
분수대
• 분수대는 1년 중 2주 정도 사용
• 중수경시설 가동시간에 대한 민원



높은 소나무와 전기줄
• 높은 소나무와 전기줄이 맞닿아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



어두운 조명
• 놀이터가 외지도 어두워 밤에는 이용하기 어려움



화장실 개보수
• 위생적이지 않은 화장실에 대한 민원



낮은 조합놀이대
• 조합놀이대가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한 민원



청소년들의 소음 및 범죄 행위
• 밤에 청소년들의 소음과 담배연기에 대한 민원
• 오토바이 소음

보호자 이야기

“유아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이 필요해요.”

어린이집 좌담회

일시
2017. 3. 15(수)
14:00-15:00 (60분)

장소
새롬어린이집 지하 강당

참여인원
새롬어린이집 원장님 외 2명,
운산유치원 원장님

“색동어린이공원을 대체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어요.
날씨가 나쁘지 않는 이상 하루에 한번씩
놀이터를 방문하는데 유아용 놀이기구도 없고
모래는 위생적이지 않아서 유아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유1동 사랑방

근처놀이터에서 이모들이 돌아가며 같이 놀아 주는 와글와글놀이터를 운영중인데 색동어린이공원에는 없어서 아쉬워요.

- 수유1동은 대체로 아이들의 놀 공간이 부족해 작은 규모의 공원에 노인, 아이, 노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 중이기에 트인 공간이 필요함



강북마을공동체

수유1동은 비교적 지역커뮤니티 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색동어린이공원 주변에 이런 단체가 없어요.

- 강북노인대학이 위치해 있어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이 거주 중이라 단체조성이 어려움
- 큰 시장 주변, 찾길 근처 등 지리적 요건으로 아이들이 모이기 힘든 놀이터임

지구대

비행청소년들의 소음 때문에 밤늦게 자주 순찰을 돌지만 그때 뿐이에요.

-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1대로 놀이터 전체를 볼 수 없음



두루두루배움터

수유초등학교에서 놀이터까지 가는 길목이 과거에는 우범지역이어서 아이들의 이용이 줄었어요.

- 현재 게임방, PC방 등을 이용하면서 비행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줄음
- 다른 공원에서 '움직이는 카페'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으나 색동어린이공원은 방문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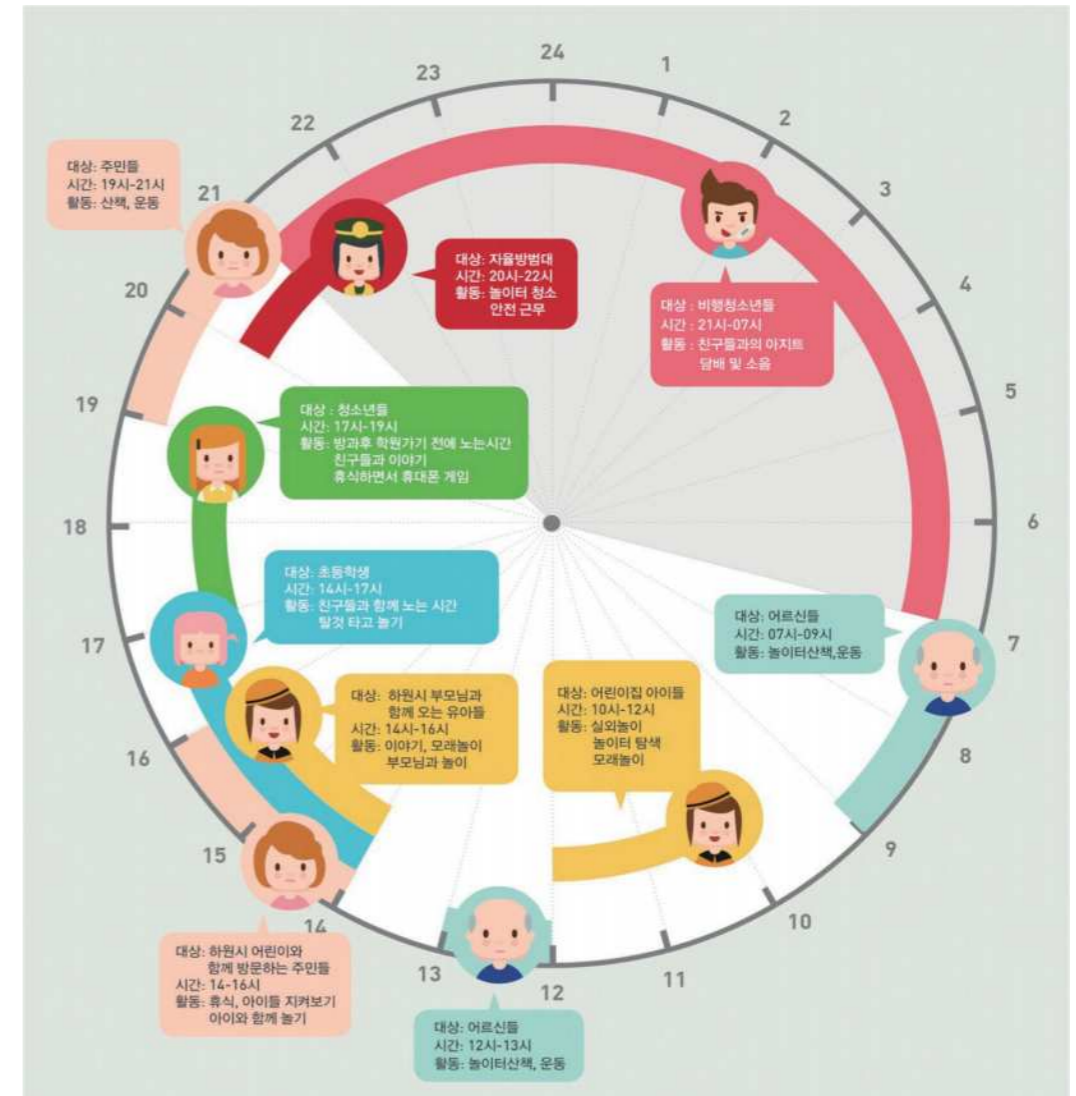
놀이터 이야기

색동어린이공원의 하루

색동어린이공원의 하루는 바쁘다.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알게된건 색동어린이공원은 시간마다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점이었다. 주로 어린이들의 경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용 시간대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주민들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하게 되는게 일반적이데 색동어린이공원은 저녁시간 해가 지고나면 주민들의 발길이 끊겨버린다. 이렇게 어른이 없는 공원은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공간이 되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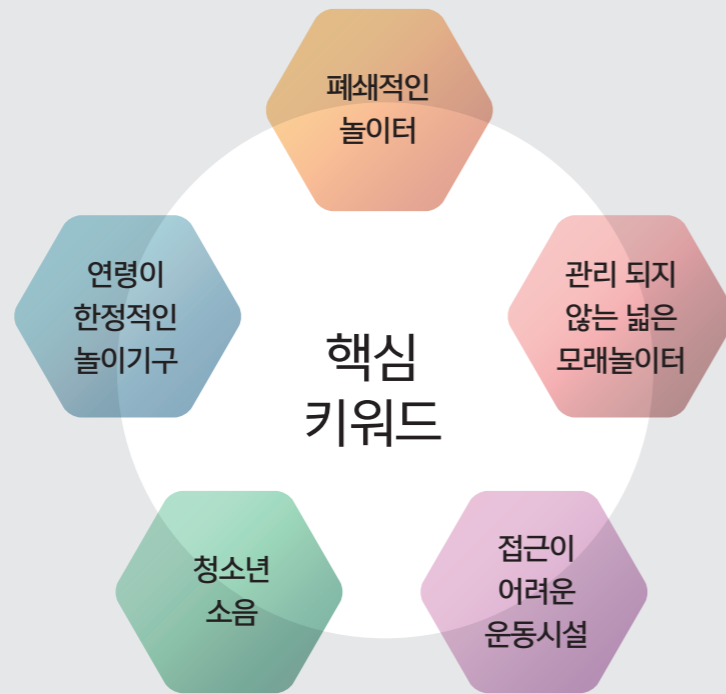
만나본 많은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모여드는 몇몇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공원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계셨다. 새벽까지 계속되는 소음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들로 주민들과 아이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갔다. 그래서 인지 주민들은 현재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원을 더 개방적이고 밝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여드는 공간을 없애길 원하고 계셨다.

분명 이 놀이터의 주인공이었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공원의 불청객이 되어버린 것이다.



소결

무엇이 문제일까?



주차타워와 큰 조합놀이대로 시야가 차단된 놀이터는 폐쇄적이고 어두워서 비행 청소년들의 밀집지역이 되기에 충분했다. 밤부터 새벽까지 색동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의 소음과 비행행위로 몸살을 앓았고, 그렇게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고 난 이 곳은 쉽게 찾아오기 힘든 놀이터로 전락했다.

그러나 골칫덩이로 남기엔 매일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공원을 방문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하교 후 매일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어린이들도 있었다. 또 매달 열리는 마을행사를 찾아 멀리 공터가 있는 공원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색동어린이공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색동어린이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S

- 자율방범대, 경로당 총무님 등 놀이터관리자가 있음

W

- 주차타워와 큰 조합놀이대로 시야 확보 어려움
- 주차차량과 차량통행 많음
- 비행 청소년들로 인한 소음
- 연령사용이 한정적인 조합놀이기구
- 폐쇄적인 운동기구의 위치로 사용이 어려움

O

- 놀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많음
- 하교 후 많은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방문함
(하교 후 수유초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 근접한 동네에 많은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있음
- 모래놀이터에 대한 욕구가 있음

T

- 어린이공원 근처에 활동중인 주민조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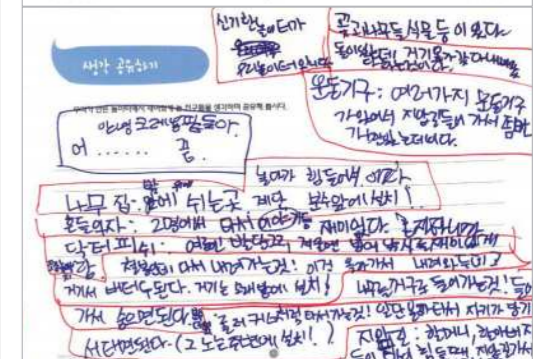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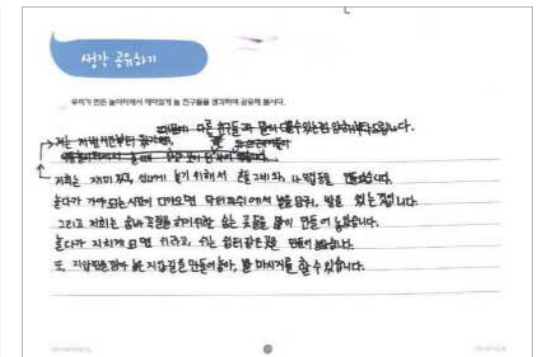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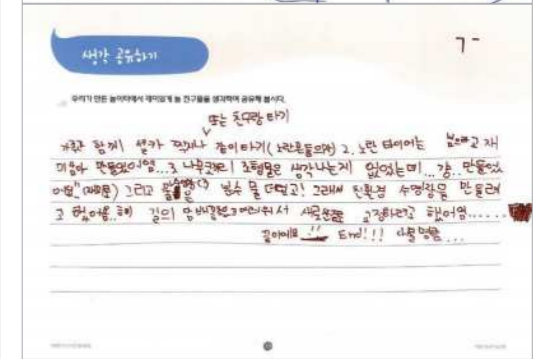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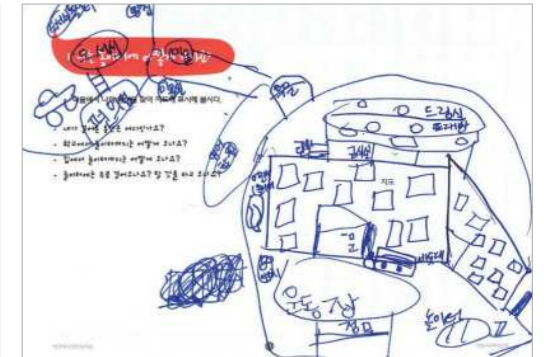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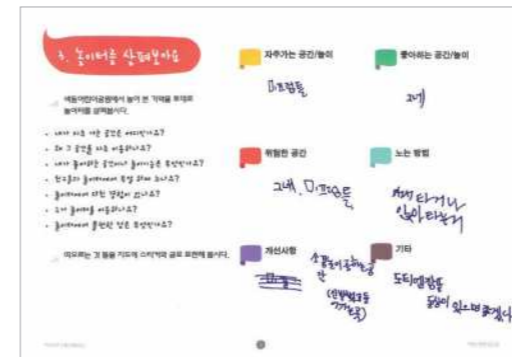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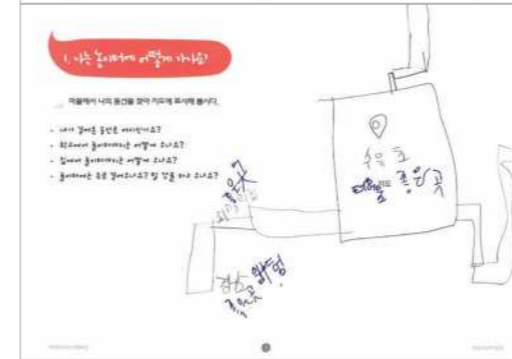


Ⅲ

함께 그리다

어린이디자인워크숍 | 워크북

아이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듣고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워크숍 워크북을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마을, 놀이터를 탐방하고, 디자인 한 후, 모형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 과정을 한 권에 담았으며 아이들은 이 워크북에 자신의 의견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어린이디자인워크숍 | 과정

마을에서 색동어린이공원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

일시
3월 17일(금)
3월 24일(금)
3월 31일(금)
4월 7일(금)

장소
수유동 주민센터

참여인원
초등학생 3-6학년 20명

주 사용계층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수유초등학교 아이들과 마을을 함께 둘러보며 어디가 위험한지, 어떤 길을 이용하는지, 마을에서 색동어린이 공원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터에서 자신의 안전하게 놀 권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고민하였다.



프로그램과정

3월 17일(금) 1주: 문제의 발견

- 마을에서 어린이공원의 역할 알아보기**
- 스티커를 이용하여 공간에 대한 생각 표현하기
 - 대상지에 대해 이해하고 현황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하기

3월 24일(금) 2주 : 디자인하기

- 색동어린이공원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지도를 통해 구조화하기

- 공간 구상 및 공간 설계하기**
- 모둠의 의견을 모아 도면 작성하기
 -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그림 등의 평면적인 방법을 통해 구체화하기



3월 31일(금)

3주 : 모형만들기

설계를 바탕으로 모형제작하기

- 평면에서 표현하지 못 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모형으로 만들어 완성하기



4월 07일(금)

4주 : 생각공유하기

발표를 통한 모둠별 계획 내용의 공유하기

- 3주 동안 수고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 각 모둠별 디자인(안)과 모형을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공유하기



어린이디자인워크숍 | 결과물

여자아이들은 나무와 꽃, 물을 좋아했고 남자아이들은 모험적인 놀이를 좋아했다. 세 모둠은 공통적으로 높은 건물을 활용한 마운딩놀이와 다양한 미끄럼틀을 만들었고 힐리스 전용도로, 놀이터를 둘러싼 파이프 등 수유동 아이들만의 특징을 담은 놀이시설들도 눈에 보였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은 유아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지압판을 만들기도 했다.

색동의 아이들은...

- ★ 놀이터의 다양한 연령의 사용자를 배려할 줄 안다
- ★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좋아한다.
- ★ 자신만의 아지트를 가지고 싶어 한다
- ★ 막힘 없이 뛰어다니고 싶은 욕구가 있다.
- ★ 혼자 놀기보다 여럿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한다.

	설계	모형	모형	놀이시설
1모듬 노랑이 무지개 놀이터				공터트랙, 나무미끄럼틀, 주차장미끄럼틀, 땅굴놀이, 물놀이, 수목원, 무지개 벤치, 나무그네, 무지개 그네, 방방, 트리하우스
2모듬 수유 놀이터				힐리스전용도로, 짐라인, 수영장, 트램폴린, 라인미끄럼틀, 영유아용 놀이터, 야외PC방, 역할놀이장, 모래놀이장, 바닥&벽분수, 미로놀이, 무대, 바닥카펫
3모듬 신기한 놀이터				트리하우스, 네트타워놀이대, 점핑지형공간, 닥터피쉬, 다인용그네, 곤충관찰대, 쉼터, 조형파이프놀이, 지압로, 주차타워 마운딩, 나무조형놀이대, 네트스크린

시설물 분류

공통

- 주차건물을 이용한 미끄럼틀
- 물놀이
- 그네

모듬별 특색있는 시설물

- 땅굴놀이
- 트랙놀이
- 마운딩
- 파이프놀이대

주민참여단

신나는 놀이터

일시

4월 19(수)
4월 21일(금)
4월 26일(수)
10:00-12:00 (120분)

장소

수유1동 노인정 지하강당
색동어린이공원

참여인원

주민들

“색동어린이공원의 놀이엄마가 되어주세요~!”

어른들은 놀이터의 든든한 조력자이다. 놀이터 조성 후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놀이활동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선생님, 자율방범대, 초등학교 학부모, 근처 주민들 등 안전한 놀이터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들을 배우고 논의 했다.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중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놀이터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서 공원이 좋게 변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 새롬어린이집 유아 부모



프로그램

회차	날짜	프로그램
1회차	2014.4.19 (수)	- 색동어린이공원 디자인 사업 개요 설명 놀이터이모의 경험담 (함께사는 수유일동 주민사랑방 박경희대표) - 지역사회에서 놀이터를 함께 지키는 것 (강북교육지원센터 허정숙대표)
2회차	2017.4.21 (금)	주민참여워크숍 활동 I - 전래놀이 (강북교육지원센터 허정숙대표 외 1)
3회차	2017.4.26 ((수)	주민참여워크숍 활동 II - 몸놀이 (강북교육지원센터 허정숙대표 외 1)

놀이터 이모의 경험담

함께 사는 수유일동 주민사랑방
박경희대표



학교 방과후 아이들과 놀아주는 놀이 이모들의 이야기.

“도시 아이들은 놀이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른들이 나서서 그 시간을 지켜 주지 않으면 놀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렸을때 친구들과 노는건 당연해서 몰랐는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 소중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논 아이들은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하고 학습태도도 좋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도 놀이를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어요.

제 나이 때 엄마들도 놀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한 두명인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놀기만 했지 밖에서 뛰어 노는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놀이를 알아야 아이들에게 노는 방식을 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놀이 이모들이 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즐겁기하면 줄 잡아주고 금 그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놀이터를
함께 지키는 것

강북 교육지원센터
허정숙대표



지역사회에서 놀이터를 함께 지키는 것

강북 교육지원센터 허정숙대표

“지역사회에서 놀이터를 지키는 방법은 주민들의 의지에서 출발해요. 92년에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누구나 가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시작했는데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민모임 토박이가 되었어요. 강북구의 놀이터 18개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봤는데 요구 사항은 다 똑같았어요. 생명이 있는 놀이터, 어른과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놀이터, 열린 공간에서 주민들이 모여 인사도 나누는 어린이 공원이 아닌 ‘우리동네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유모차와 어르신들이 불편한 놀이터 턱을 없애고 생명이 있는 놀이터를 위해 텃밭을 가꾸고….

선뜻 시작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같이 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참여도가 높아져요. 이런 활동들로 주민리더로 거듭났던 활동들을 말씀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당백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놀이워크숍 놀이

어른들이 놀 줄 알아야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어요



애들아~ 놀자~!

일시

4월 19(수),
4월 26일(수),
5월 10일(수),
5월 17일(수)

장소

색동어린이공원

참여인원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다함께 신나게 놀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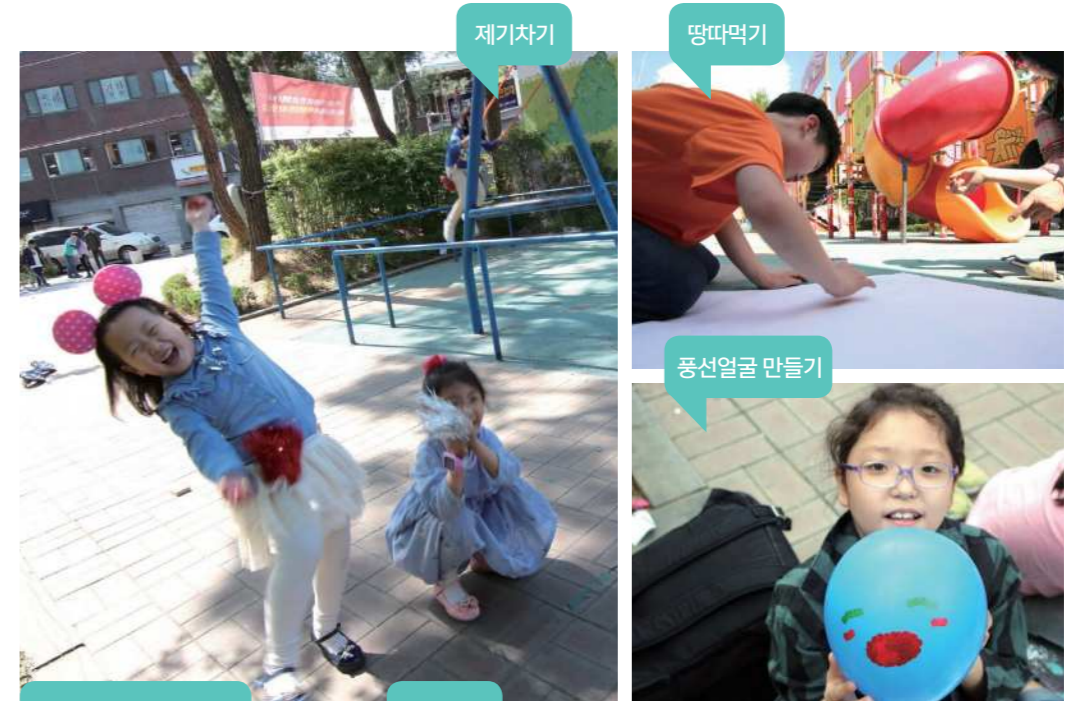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정해진 놀이기구를 이용해 놀기보다는 규칙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놀이를 즐긴다. 놀이터에서는 전래놀이도 할 수 있고, 맨몸으로 놀 수도 있고, 친구들 끼리 규칙을 정해서 릴레이 놀이를 하거나, 심지어 놀이터에서 만들기를 할 수도 있다.

세상에 많은 놀이들이 존재하고 놀이에는 규칙도 제한도 없으니 다양한 놀이들을 놀이터 친구들과 함께 즐겨 보았다.



프로그램

회차	날짜	프로그램	진행자
1회차	2014.4.19 (수)	직접 놀잇감을 만들어 노는 전래놀이	김선희 외1 (마을꿈터)
2회차	2017.4.26 (수)	몸으로 노는 신나는 놀이터	김선희 외1 (마을꿈터)
3회차	2017.5.10 (수)	오브제를 활용한 오감 총족 예술놀이	최소진 외1 (극단진동)
4회차	2017.5.17 (수)	다 같이 놀자~ 명랑 운동회	허정숙 외1 (도깨비)



제기차기

땅따먹기

풍선얼굴 만들기



풍선 떨어 트리지 않기



땅따먹기

애들아~ 놀자~!

고무줄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종 미션 릴레이



팽이돌리기



종이 찢어 만들기



풍선터뜨리기



“

지금의 색동어린이공원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공간인 반면,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해 점차 멀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색동어린이공원은
동네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중심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간

막힘없는 공간으로 시야확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안전한 공간

시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민, 어르신들 모두의 활동을 고려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바랍니다.

다양한 사용연령을 고려한
놀이, 휴게, 운동

관계

마지막으로, 골칫덩이인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색동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화학의 장소
커뮤니티 활동 지원

놀이

아이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놀이를 통해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연령별 놀이 난이도
신체활동 극대화

"좋은 공간은 내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갈
색동어린이공원 주민들의
주인의식에서 시작됩니다"



IV

놀이터를 기다리며

참여디자인 | 유아 안전수칙을 만들어요

일시
07월 13일 (목)
13:30~14:30(60분)

장소
새롬어린이집

참여인원
7세 유아 8명

주제
새로운
색동어린이공원에서
노는 방법

놀이터의 개장을 기다리면서 어린이집 친구들과 새로워진 색동어린이공원을 보고 친구들과 노는 방식, 놀 때 위험한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시설물을 보고 자신들이 놀고 싶은 방식에 대해 그림을 그렸고 안전수칙을 하나씩 정하였다. 그네는 줄을 잡고 앉아서 타야 하고, 그물놀이는 조심조심 올라가야 한다. 아이들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안전하게 놀 것을 약속하면서 마무리했다.



어린이들이 만든 안전수칙

- ★ 앉아서 타요.
- ★ 위험하게 타지 않는다.
- ★ 조심조심 올라가요.
- ★ 차례차례 타요.
- ★ 줄을 꼭 잡고 타요.
- ★ 식물을 보호해요.
- ★ 힐리스를 신고 공을 차면 안돼요.



참여디자인 | 주민

주민들이 만드는 놀이

일시

07월 13일(목)
07월 25일(화)
08월 16일(수)
08월 25일(금)

‘엄마들이 쓰아 올린 작은공연’은 그림책을 읽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공연이나 인형극을 통해 전달하는 동네엄마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우리는 엄마들과 함께 그림책의 이야기를 놀이로 발전시켜 보았다. <슈퍼거북>을 읽고 아이들은 튼튼한 거북이가 되기 위한 놀이여정을 떠난다.

장소

우리카페

참여인원

엄소공 회원 7명

주제

새로운
색동어린이공원에서
노는 방법



주민들이 만드는 놀이

출발점

슈퍼 거북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활동의 규칙을 듣는다



모래나르기

모래놀이터에서 모래를 담고 나르는 신체활동으로 팔과 하체를 튼튼히 한다.



사방치기

전통놀이 사방치기를 하면서 집중력과 몸의 균형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오르락 내리락

놀이기구를 오르고 내리며 순발력과 다리 힘을 키운다.

그물타기

그물에 매달려 이동하는 신체 활동으로 팔의 힘을 키운다.

결승점

완주하여 결승점을 통과하는 아이들에게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하며 활동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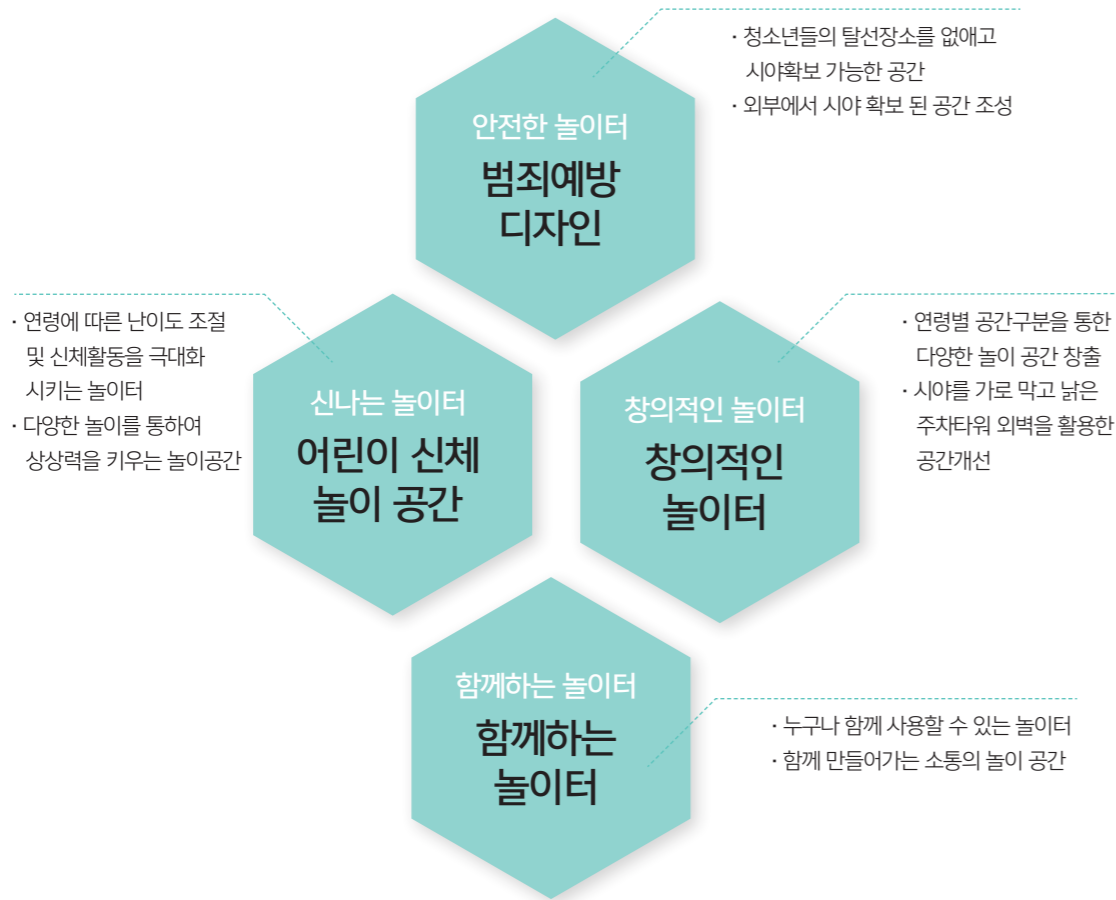
V

디자인하기

V 디자인 하기

컨셉

활력을 넣어주는 중심공간, 색동



계획



Program



안전한 놀이터

색동어린이공원을 답답하게 막고 있던 조합놀이대를 걷어내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놀이터를 만들고자 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쪽에 위치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운동 기구들을 잘보이는 길가 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는 나무를 심어 탈선의 장소였던 폐쇄적인 공간을 없애고 바깥쪽으로 벤치를 설치하여 오픈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두가지 높이의 마운딩을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동선을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신나는 놀이터

마운딩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게 해준다. 마음껏 뛰어다니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놀이를 만들어 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을 다양한 규격과 형태, 재질로 설치하여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다양한 높이로 구성된 넷놀이대는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용할 수 있어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자극한다. 이번 디자인의 메인 컨셉인 대형 마운딩과 놀이터를 감싸고 있는 트랙은 어린이 디자인단의 의견에서 반영되었다. 아이들은 더 모험적이고 활동성 있는 공간을 원했다. 또한 가장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모래놀이터를 조성하였다. 특히 음수대 옆에 위치시켜 아이들이 물과 함께 자연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V 디자인 하기 계획

창의적인 놀이터

모래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시키고 유연한 놀이가 가능한 매우 좋은 놀잇감이 다. 공원 특성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물놀이와 연계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음수대 옆에 모래테이블과 함께 설치하였다. 오픈스페이스이지만 놀이터 주변으로 조성된 트랙과 마운딩을 바닥 패턴을 이용해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 영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께하는 놀이터

구석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률이 떨어지는 운동시설물의 위치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놀이터의 외부로 운동시설위치를 옮기고 동선을 이어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노인정 후문 쪽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이용되며 탈선장 소였던 공간을 왕벚나무와 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운동시설 공간을 앞쪽으로 설치하여 지역사회에서 공유하고 열린 주민이 함께 사용 가능한 어린이공원이 되고자 하였다.

색채 계획

공원에 식재가 잘 구성되어 있어 이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린을 메인컬러로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고 보다 활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블루를 사용하여 트랙을 조성하였다. 어수선히 보였던 주차타워의 동화풍의 벽화 대신 노랑 계열의 컬러로 단순하게 배색하여 주변 환경을 정돈되어 보이도록 디자인 하였다

식재 계획

또한, 색동 어린이 공원 내 상태가 좋지 않은 식재 삭제 및 단조로운 식재 패턴의 수종을 삭제하고 화사한 화관목류의 산철쭉, 병꽃나무, 쯤작살나무를 식재에 반영하여 새로운 놀이터에 맞게 디자인 및 배치하여 디자인하였다.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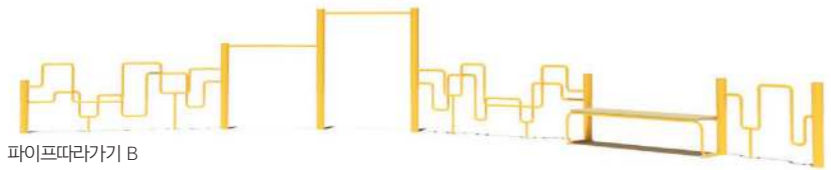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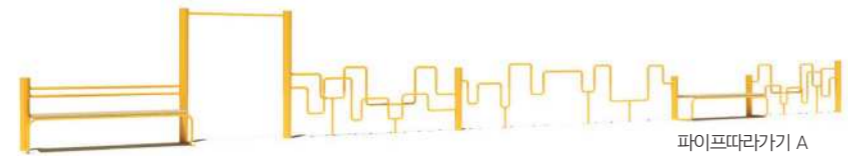
식재계획



- ① 분수대
- ② 앉음벽
- ③ 데크 길 건너기
- ④ 파이프 오르기
- ⑤ H1800 원통 슬라이드
- ⑥ 마운딩 암벽오르기
- ⑦ H2400 원통 슬라이드
- ⑧ 앉음벽
- ⑨ 파이프 따라가기 A
- ⑩ 파이프 통과하기



- ⑪ 파이프놀이대
- ⑫ 나무놀이집
- ⑬ H1500 직선 슬라이드
- ⑭ 2인용 그네
- ⑮ 운동시설
- ⑯ 파이프따라가기 B
- ⑰ 흔들놀이대
- ⑱ 모래 놀이장
- ⑲ 바닥 패턴 놀이



- 휴게시설** 파이프 따라가기A, 파이프 따라가기B, 앉음벽A, 앉음벽B
- 놀이시설** 어린이 - 마운딩 공간놀이(데크 길 따라가기, 파이프건너기, 원통슬라이드 2EA), 파이프건너기, 2인용 그네, 원통통과하기
유아- 나무놀이집, 모래테이블, 흔들 놀이대 2EA
- 기타시설** 가로등, CCTV, 화장실, 녹지공간

공사진행과정

1. 놀이터 철거 및
폐기물처리



2. 부지정리



3. 경계석공사



4. 기초공사,
마운딩



5. 시설물설치



7. 고무칩,
인조잔디 시공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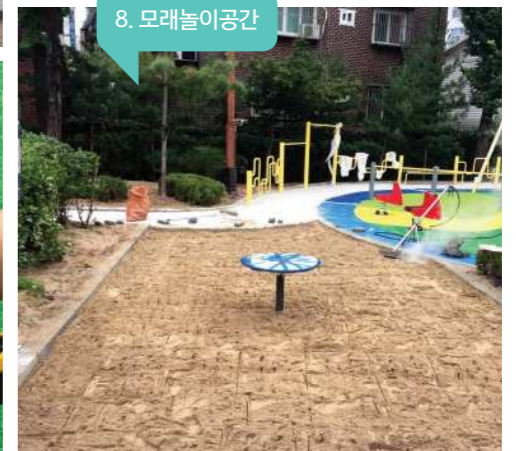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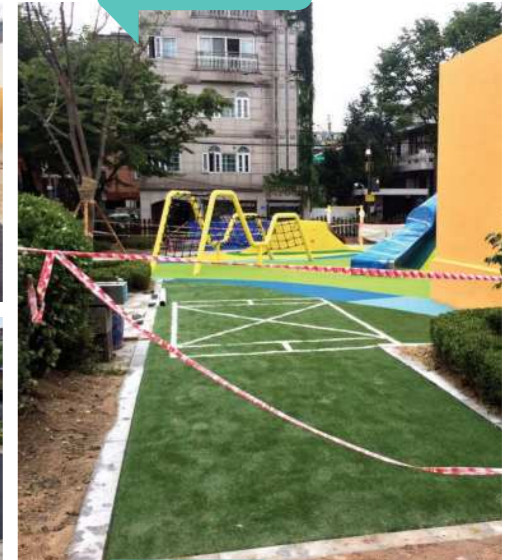
6. 고무칩 포설



9. 안전인증,
활동성검사,
설치검사



8. 모래놀이공간



완료





VI

색동아 반가워

- 개장식 -

개장식

일시

09월08일(금)
15:00~17:30

장소

색동어린이공원

참여기관

엄마들이 쓰아올린 작은공연
강북 F M
함수사랑방
새롬어린이집
정흥종합복지관
좋은소리



새롭게 바뀐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진 듯 하다. 큰 조합놀이대를 없애고 얻은 넓은 공간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어린 유아들도 작은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워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놀이를 도와줄 수 있다.



참여마당

축하공연1

새롬어린이집
4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축하공연2

새롬어린이집
7세 대한민국송



축하공연3

미술공연
이민철 미술사



박터트리기

전체



체험마당

페이스페인팅

진행
함수사랑방



캘리그래피

진행
좋은소리



안전나무만들기

진행
아이땅



친구들과 함께 폐자재인 울타리를 이용해 안전수칙 푼말을 디자인했다. 안전수칙을 정하면서 아이들은 놀이터의 이용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놀이마당

슈퍼거북
거북아 행복하니?

진행
엄마들이 쓰아올린
작은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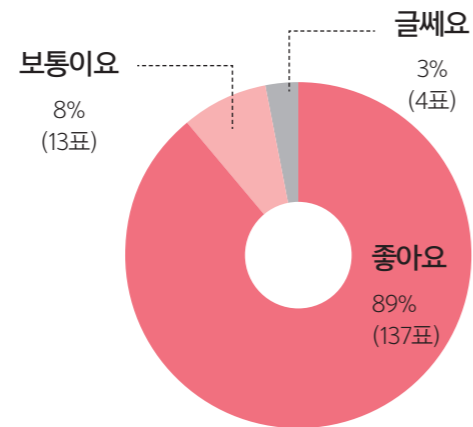


놀이터를 기다리며 엄마들과 만든 놀이를 개장식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다. 아이들은 슈퍼거북이가 되어 누구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놀이미션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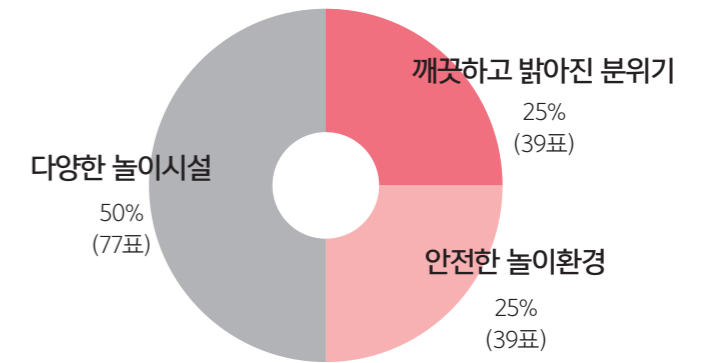
현장 설문 내용

달라진 색동어린이공원에 대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색동어린이공원이 새롭게 변화한 후, 변화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89%에 해당하는
 137명의 주민들이 '좋아요'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해진 놀이시설물에 대해 50%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깨끗하고 밝아진 분위기와, 안전한 놀이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각 2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색동어린이공원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놀이터는 어떤가요?



색동어린이공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인가요?



애들이 놀자 개장식 이후 함께한 이야기

색동을 말하다

일시

- 1차 2017. 10. 17(화)
- 2차 2017. 10. 20(금)
- 3차 2017. 10. 27(금)
- 4차 2017. 10. 31(화)

참여인원

- 1~2차 유아
- 3~4차 초등학생



놀이활동프로그램
“애들이 놀자”

새롭게 바뀐 색동어린이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들과 놀이활동 프로그램 “애들이 놀자”를 진행하였다. 멋진 모습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더욱 재미있게 놀이터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친구와 께안고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고 마운딩에 오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화된 색동어린이공원과 더욱 친숙해지고 이 곳에서만의 게임을 만들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다면 더욱 애착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놀이활동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놀이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건강하게 놀이터를 이용하고 기존 게임도 색동어린이공원의 환경에 맞추어 각색해 즐기는 법을 알려주었다. 직접 게임규칙도 만들고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아이들은 더욱 색동어린이공원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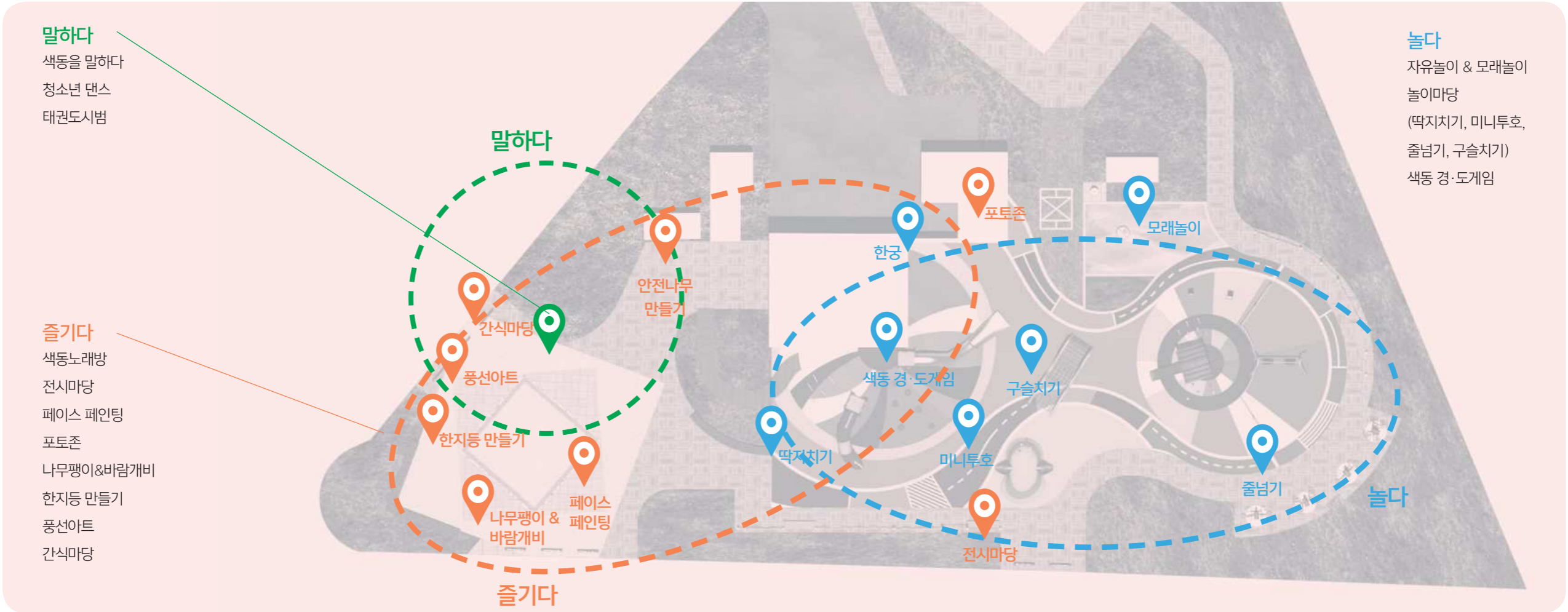




VII

색동아 축하해

놀이한마당
색동 놀이한마당 플랜



색동을 말하다 놀다 즐기다



색동어린이공원이 새 단장되고 난 후 색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그리고 변화한 색동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뛰어 놀고 있을까? 변화된 색동과 함께한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색동어린이공원에 대해 말하고 놀고 즐기는 놀이 한마당이 열렸다



말하다

색동을 말하다

참여
어린이 / 지역주민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되어 좋아요.’

변화된 색동어린이공원에 대해 아이들과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색동어린이공원에 대해 느낀 점을 사연으로 보내고 소개되면 선물도 받아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축하공연

참여
강북청소년수련관



태권도 시범

참여
성수태권도



놀다

자유놀이&모래놀이

진행
놀이터이모



색동 경·도게임

진행
아이땅

놀이워크샵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만든 '색동 경찰과 도둑 게임'은 매우 인기가 좋았다. 놀이워크샵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게임 규칙을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게임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께 자랑 하기도 했다.



놀다

놀이마당
(딱지치기, 미니투호,
줄넘기, 구슬치기)

진행
창의인성놀이팀



즐기다

색동노래방

진행
강북청년협동조합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색동 노래방은 잔치분위기를 이끄는 일등 공신이였다.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점수가 높은 어린이들은 룰렛을 돌려 상품도 받을 수 있어 그 재미를 더했다

포토존

진행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페이스페인팅

진행
강북청년협동조합



'얼굴에 꽃 피었네!'



전시마당

진행
아이땅



전시마당 '사진의 주인공은 나야 나' 에서는 그동안 색동어린이공원의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포토프린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해 인화해주어 색동어린이공원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즐기다

나무팽이&바람개비

진행
인덕대 사회복지과



'내가 만든 팽이와
바람개비, 멋지죠!'

간식마당

진행
수유1동성당



11월 11일 가래떡 데이를 맞아 따끈따끈한 가래떡과 팝콘도 나누어 먹으니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행복해지는 잔치풍경이었다.

풍선아트



멋진 뼈에로 분장을 한 풍선아티스트가 만들어주는 풍선을 받기 위해 많은 어린이들이 줄을 섰다. 길다란 검 풍선을 들고 친구들과 칼싸움도 하고 요술봉을 들고 요정이 된 기분으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달라진 놀이터 이야기 | 어린이

“재미있고 깨끗한 색동어린이공원이 좋아요”

여전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어린이들이 찾는 색동어린이공원,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과 움직임은 더욱 밝고 활발해 졌다. 힐리스나 자전거, 쌍쌍이를 타던 아이들도 놀이터에 도착하면 탈 것을 세우고 놀이터를 즐기기에 집중한다. 특히 커다랗고 긴 미끄럼틀은 모든 어린이들이 숨쉴 색동어린이공원의 메인 놀이기구가 되었다.



‘태권도 학원을 가기 전에 색동어린이공원에서 놀고 가면 태권도가 더 잘되요!’ 색동어린이공원은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얻는 장소가 되었고, ‘같이 만든 놀이터라서 더 재미있어요.’ 남다른 애정이 담긴 추억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오래되고 위험한 놀이터였던 이 곳이 이제는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전에 어린이들에게 5점대의 점수를 받은 색동어린이공원은 새 단장 이후 9.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높은 점수를 매긴 이유로 놀이터가 재미있어졌고 깨끗한 환경에서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색동어린이공원의
현재점수는?

9.1점

왜죠?

1. 놀이터가 재미있다
2. 깨끗해졌다
3. 미끄럼틀과 그네가 재미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시소가 없어지고 모래놀이터가 축소된 점을 꼽았다. 물론 모래가 사라져 놀기 좋다는 반대의 의견도 보였다. 그리고 그네에 달려 있던 잠자리가 사라져 아쉽다는 귀여운 답변도 있었다

또한 놀이터에서는 미끄럼틀, 그네를 가장 즐겨타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래잡기와 숨바꼭질, 모래놀이와 팽이게임 등을 즐겨한다고 대답했다.

달라진 놀이터 이야기 | 지역 주민

“이젠 걱정없이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새 단장 후,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과거 낡고 오래되었으며 시끄러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여겨졌던 색동어린이공원. 하지만 이젠 깨끗하고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로 바뀌었다. 주말에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고 후,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걱정이 없는 놀이터로 바뀌었다.



‘우리 짝 옆에 있는 놀이터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놀이한마당 소식을 듣고 옆 동네에서 놀러 온 30대의 엄마는 이런 요청을 해왔다. 누가 봐도 멋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로 변화했음을 증명 받은 것 같았다. 물론 놀이터라는 특성 때문에 여전히 시끌벅적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깨끗하고 예쁘게 새 단장한 모습만큼 이 곳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주민들에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소리로 다가갈 것 기대해본다

3점대의 낮은 점수를 주었던 주민들 역시 새단장 이후, 8.4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높은 점수를 준 이유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안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쓰레기통이 부족하고 앉아 있을 공간과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색동어린이공원의
현재점수는?

8.4 점

왜죠?

1. 놀이기구가 많다
2. 안전하고 깨끗해졌다
3.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색동어린이공원을 찾는 경우, 아이들에게 미끄럼틀과 그네를 태워주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그리고 마운딩을 오르거나 모래놀이를 즐겨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답했다.





VIII

마치며

색동을 말하다

코오롱글로벌
김우성 과장

작년에 이어 두번째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디자인의 형식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색동어린이공원은 놀이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공간으로 야간에는 우범지대로까지 인식되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색동어린이공원이 마을의 중심공간이자 활력이 되는 공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이웃간, 세대간, 그리고 아이들 사이의 관계성 회복 및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이디자인단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놀이터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 색동어린이공원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당초 있었던 녹지내 수목과 이용성이 높았던 바닥분수는 존치하고 주차타워 외벽을 활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며 노인정 후면의 숨겨진 공간을 오픈하여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강동구의 달님어린이공원에서 적용되었던 파이프를 이용한 놀이대와 지형변화를 이용한 슬라이드, 바닥을 이용한 창의적 놀이공간 등을 업그레이드 시켜 적용하여 “놀이터를 지켜라” 시그니처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컨셉에 맞는 여러 디자인적 요소들을 전문가와 지역주민, 아이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나갔습니다.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아쉬움은 남지만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색동어린이공원에서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웃고 뛰어놀며 지역주민들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 및 행복한 놀이터를 위해 저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유대회 드림

처음 민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색동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전해 들었을 때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코오롱, 서울시, 우리구와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도 추진과정에서 기관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처음 걱정과는 달리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공사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본받을 만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에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술사를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을 보고 저도 앞으로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일을 해 나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원이 조성된 만큼 이용주민들의 공원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힘써주신 세이브더칠드런과 코오롱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놀 권리 향상을 위해 우리 강북구 뿐 아니라 타구에도 재미있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놀이터를 지켜야하는 이유

세이브더칠드런
안정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지만 여기처럼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신나게 그네를 타고 놀이터 한 켠에서 공놀이를 하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계속 피어납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놀이터가 있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찾아가던 곳이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놀이터에 모이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 색동어린이공원이 새롭게 바뀌어도 유년의 기억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은 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놀이터 인근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놀이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낡은 놀이기구, 지저분한 환경, 운동기구 부족, 어두컴컴한 조명으로 놀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나름의 수고를 했지만 변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그저 공원이 좀 더 밝아지고,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유년의 형제를 동반한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하원길에 가끔 들르는 곳이지만 이곳에 대한 불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낡은 조합놀이대, 지저분한 모래놀이대, 위험한 놀이기구, 그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놀이터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에게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터에는 아이들과 함께 한 아빠와 엄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넓고 탁 트인 놀이터 한 켠의 운동기구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속의 그 모습입니다. 놀이터를 아끼고 휴지를 줍고, 잡초를 뽑는 주민들도 하나 둘 모습을 보입니다. 주민 스스로 놀이터를 아끼고 지키려는 노력이 오래도록 아이들 곁에 소중한 공간으로 머물게 할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함께 맘껏 실컷 뛰어노는 아이들이 먼 훗날에도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놀이터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우펀스테이션
백기웅디자이너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는 그 이름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며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만들어지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입장보다는 관리자(어른)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색동어린이공원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청우펀스테이션
서지예디자이너

색동 어린이 공원을 디자인할 때 작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곳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주민에 포커스를 맞추어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시설을 계획하였고 색동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디자인단이 직접 디자인 한 공간이기에 놀이터의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색동에서 뛰어놀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어린이 위한 공간, 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의 어린이와 주민에게 좋은 추억의 공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청우펀스테이션
손나은디자이너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야 했고 그 안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넓은 공간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놀이경험을 쌓는 자유공간이 되기를 바랬고 주민들에게는 쉼터이자 운동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디자인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변화를 통해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색동 어린이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색동놀이터에서 놀아 본 아이들의 한마디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To. 색동놀이터
앞으로 더 발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우리도 꼭꼭 놀이할게!
지윤아.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김도현

색동놀이터가 공사후에 더
재밌어서 많이 이용하고있다.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송강민

색동놀이터가공사 이후로더욱더
여러가지 키구르코프로젝트
생겨서술고 구조가중 아저씨중야요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채민경

놀이터가 만이달리가지
고 되게좋아요.
그리고늘어지고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놀이터야!
우리들이신나게 놀고 싶터가 될수있는
곳이 돼어줘서고마워!
정예은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놀이터야 예쁘고 재미있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채소연-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예쁘고 사랑스러운
놀이터
황정임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김민지(학병)

이렇게 바쁘게 좋아~♡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한마디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우리마이가 태권도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서이연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색동 놀이터
매기들나 즐겁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이
기다 ~♡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놀이터를 지켜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하데요-
강남구 곳곳에
놀이터가 많이 확충 되었으면
좋겠어요 -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색동놀이터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행사도 하고...
기쁩니다.. -진은 엄마-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색동어린이공원 놀이터
넘~ 좋아요 -
음 아이와 오래오래
좋은 친구가 되요~♡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아이 하고 갈때 항상 들이르는 합니다.
여름 이랑 같이 온다고 했는데 잘
안되요.
자주 꼭오고 싶어요
무열엄마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방울
처음왔을 때 방울이 없이 아쉬웠는데 이제
방울도 생겨서 좋아요!
살고 더욱 방울하고 어울리는 색동
놀이터가 되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강보경-

놀이터를 지켜라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바탕이 되어주는 공간이
되길바랍니다 -최향안

색동놀이터에서 찰칵!


놀이터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시커라




미끄럼틀이 길다




놀이터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시커라




햇살에 많이
없어서
지금 거꾸
앉아서
좋아




놀이터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시커라




김신우
이 놀이터가
더 발전하고
재미있는 데를
만들어 주세요




놀이터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시커라




놀이터가
바뀌니까
프로젝트
도있고
재미있어요.



놀이터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시커라



미끄럼틀이 3개다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 사업기간 2017. 1. 16 ~ 2017. 12. 31

★ 총괄 세이브더칠드런

★ 후원 (주)코오롱

★ 재능기부 코오롱글로벌(주)

★ 기획 (주)아이땅

★ 디자인 및 설계 (주)청우퍼스태이션

★ 함께 해주신 분들

인덕대학교 사회복지과 / 좋은소리 / 새롬어린이집 / 엄쓰공 / 강북FM / 정릉종합복지관 / 강북청소년 수련관 / 성수태권도체육관 / 창의인성놀이팀 / 강북청년협동조합 / 함수사랑방 / 수유1동성당 / 도깨비 / 희망의집 지역아동센터 / 두루두루배움터 / 운산유치원 / 강북 노인대학 / 녹색마을 / 우일교회 / 수유1동자율방범대 / 수유1동 노인정 / 마을꿈터 / 뮤직홈 우리동네오케스트라 / 수유초등학교 / 강북마을지원단 / 극단진동 / 강북청소년수련관

★ 발행일 2017. 12. 31


★ 발행처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 주관  세이브더칠드런

★ 후원  KOLON

★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